

## 강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관람석 364석 '토치 복원'으로 새 단장 ... 99% 예산 절감 효과

좌석 교체비 2548만원 대신 LP가스 4만원으로 원색 복원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산 전망  
최순철 "예산은 아끼고 시설 품질은 높이는 시설관리 실천"

이달수 기자 (jump68@newdaily.co.kr)

기사입력 2026-09-15 09:31:30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평창종합운동장의 노후 관람석을 'LP가스 토치 원색 복원 공법'으로 복원하는 모습.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지난 주말에 열린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장인 평창종합운동장에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시설 운영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에 따르면 평창종합운동장의 노후 관람석 364석을 좌석 교체 없이 'LP가스 토치 원색 복원 공법'으로 복원해 교체비 약 2544만 원을 절감하고 대회 관람환경을 개선했다.

약 1000석 규모의 평창종합운동장 야외 관람석은 설치 후 장기간 자외선과 비·눈에 노출되면서 플라스틱 좌석 표면에 산화층이 생겨 색이 바래고 얼룩이 심해진 상태였다.

통상적인 개선 방법인 좌석 전면 교체는 좌석당 약 7만 원, 전체 도색은 1000만~1500만 원의 비용이 수반되며 도색은 플라스틱 특성상 1~2년 내 도막이 벗겨져 재시공이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도료를 덧입히는 대신 LP가스 토치로 좌석 표면에 열을 가해 산화층을 녹여내고 플라스틱 본래의 색을 되살리는 방식을 고안해 추진했다.



▲ 복원 전(사진 위)과 복원 후 모습(아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시범 복원으로 복원 상태와 내구성을 확인한 뒤 본 작업에 착수해 대회 개막 전 퇴색이 심한 364석의 복원을 마쳤다.

이번 복원에 투입된 재료비는 LP가스 1통(10kg) 4만원이 전부다. 결국 교체 대비 99.8%, 도색 대비 약 99%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공단은 작업 전 화기 취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열장갑·보호안경·방염복 등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진행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의 이러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는 비슷한 환경을 가진 타 지역 시설공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 복원 전(사진 위)과 복원 후 모습(아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도민 경기장을 새롭게 단장해 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내 야외 체육시설과 공원 벤치 등에 같은 기법을 확대 적용해 예산은 아끼고 시설 품질은 높이는 시설관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 주소

<https://g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15/2026091500075.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